

<p>Gospel unity within the Church and gospel mission to the world – these are two of the great themes of Romans, and two of the great passions of Paul’s ministry. As Paul begins to draw his letter to the Roman church to a close in chapter 15, these two themes are the focus of the chapter. We looked at the theme of gospel mission to the world a few weeks ago at our August Combined Service (15: 14-33). This morning we will look at the theme of gospel unity within the church (15: 1-13).</p>	<p>교회 내에서 복음의 연합과 세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 이는 로마서의 큰 주제들 가운데 두 가지이며, 바울이 가장 큰 열정을 가진 사역 중 두 가지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15 장에서 그 끝에 이를 때에, 이 두 주제는 이 장의 핵심입니다. 몇 주전 8 월 연합 예배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복음 사역의 주제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15:14-33). 오늘 아침에는 교회 내에서 복음의 연합이라는 주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5:1-13).</p>
<p>Paul begins by giving us a sweeping principle for Christian ethics: “We who are strong ought to bear with the failings of the weak and not to please ourselves”. The people with power (economic, cultural, social) must be stewards of their power to build up and please those who are “weak” in that area. They are not to use their power to build up themselves and make themselves feel comfortable. Clearly, this statement builds on the discussion in Romans 14, where, you will remember, Paul was teaching about relationships within the church. However, it would seem that when he uses the word “neighbour” in verse 2, he is extending the teaching. Only Christians are my brothers and sisters, but any and every human being is my “neighbour” as we see from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Luke 10: 29-37).</p>	<p>바울은 크리스천 윤리에 관한 포괄적 원칙을 제시하면서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권력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잘 관리하여 그 영역에서 "약한" 자들을 굳건히 세우고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힘을 이용해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분명 이 구절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로마서 14 장에서 바울이 교회 내에서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던 그 토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2 절에서 "이웃"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가르침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크리스천들만이 나의 형제, 자매지만, 선한 사마리아 인에 관한 우화에서 우리가 보듯이 (누가복음 10:29-37), 모든 인간은 나의 "이웃"입니다.</p>
<p>So the principle of Romans 15: 1 is sweeping because it applies in every area of life. First, in the area of finances, Christians with money are to see their money as given to them by God to assist and build up and lift up those without it and in need. And this is to begin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nd Paul gives a practical example in vv. 25-28 with his raising of a financial gift for the poor Christians in Jerusalem, suffering from persecution and famine. In the area of church leadership, Christian leaders are not to arrange the ministry simply to make themselves happy and comfortable, but with the outsider, the skeptic and those in need of physical and spiritual care in mind. As far as relationships are concerned, we are not simply to relate to those who are like-minded or to people who give to us and build us up emotionally. We must be prepared to</p>	<p>따라서 로마서 15:1 의 원칙은 그것이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기 때문에 포괄적입니다. 첫째, 재정적인 면에서, 부유한 크리스천은 그들의 부를 가난하고 곤궁한 사람들을 도와 세우고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안의 우리 형제 자매들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바울은 15-28 절에서 박해와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크리스천들을 돕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모금하는 실질적 예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에 관한 영역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은 단순히 그들을 행복하고 편하게 해줄 사역이 아니라, 외부인과 무신론자, 그리고 신체적 및 영적으로 보살핌이</p>

<p>love and relate to people who are draining or difficult. A Christian does not walk into a room and immediately ask: "Are these people I want to be seen with? Are these people I will enjoy?", but rather, "How can I help and build these people up?" "Who might I be able to serve in some way?" Then there is the issue of choice of residence. Instead of asking, "Where would I be most comfortable living?" we should ask: "Where could I be most useful to God and others?" "Community development" is a ministry in which Christians who have the economic means and strength to live elsewhere choose to move into an economically deprived and even devastated neighbourhood and give their lives to rebuild it. Finally, there are relationships in the church. As we saw in chapter 14, in the church, we are not to seek to win arguments with Christians who differ, but respect them, reconsider our own positions and, if differences persist, seek to accommodate ourselves to the sensitivities of others. Indeed, our greatest concern is the spiritual growth of our brother or sister, so we should seek to do whatever will build them up.</p>	<p>필요한 사람들을 염두에 둔 그러한 사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에게 베풀고 감정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 곧바로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걸 다른 사람들이 봐도 괜찮나?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즐거울까?"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와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든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면 이제 거주지를 선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할까?"라고 묻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공동체 개발"은 어딘가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경제적 수단과 힘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심지어 황폐하기까지 한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곳을 재건하는데 그들의 일생을 바치는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내에서의 관계가 있습니다. 14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견해를 가진 크리스천들과의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고 우리 자신의 입장을 재고해보아야 하며, 만약 여전히 다른 점이 계속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민감한 부분에 우리를 맞추려 노력해야 합니다. 실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 형제 자매의 영적 성장이며, 따라서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p>
<p>As ever in his ministry and in the book of Romans, Paul reminds us that Jesus Christ is both our example and our motivation. "Even Christ" – the eternal Son of God, who is deserving of the world's praise and worship – "did not please himself" (v. 3). He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Mark 10: 45). To demonstrate this, Paul quotes from Psalm 69, which is quoted several times in the New Testament as a "messianic psalm", pointing to the life and ministry of the Christ. In that psalm, a good and righteous</p>	<p>언제나처럼 바울은 그의 사역과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보기이며 우리의 동기부여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 세상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 -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3 절).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45). 이를 입증하기 위해 바울은</p>

<p>man endures undeserved suffering and persecution: “The insults of those who insult you have fallen on me”, he says to God (v. 3). In applying this to Jesus, Paul is saying that Jesus was willing to be mocked, tortured and killed by those who were God’s enemies. He did that to serve those around him, and we are to have the same attitude toward everyone around us – to live sacrificially to build them up.</p>	<p>신약에서 "메시아 시편"으로 여러 번 인용된 시편 69 편을 인용해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선하고 의로운 자는 부당한 고난과 박해를 견뎌냅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3 절). 이 말을 예수께 적용함에 있어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적이었던 자들에 의해 기꺼이 조롱 받고, 고문 당하고 죽임 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주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그렇게 하셨으며, 우리는 우리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희생적으로 사는 것.</p>
<p>As soon as Paul quotes Scripture, he is led to state, as an aside, a great general principle: “Everything that was written in the past was written to teach us, so that through endurance and the encouragement of the Scripture we might have hope” (v. 4). Three implications flow from this. First, the Scriptures are entirely applicable today. “The past was written to teach us.” In other words, anything preserved in Scripture is preserved to teach us something. When Paul says “everything”, he is teaching what is known as the “plenary” inspiration of the Bible. Every bit of it is designed by God for us, and every bit has lessons and applications. We see a wonderful example of this in the passage we read from 1 Corinthians 10: 1-13. Paul says there, “These things happened to them (the Old Testament people of God in their wilderness wanderings on the way from Egypt to Canaan) as examples and were written down as warnings for us, on whom the fulfilment of the ages has come” (v. 11). Second, the Scriptures are centred on Christ. Paul’s ability to quote Psalm 69 and apply it to Christ reminds us that, basically, all of Scripture is about Jesus. Third, if used properly, the Scriptures will increase “hope” in us. The two ways in which Scripture does this are through endurance (which means that the Bible calls us to hard work and discipline) and through encouragement (which means that the Bible makes incredible and precious promises). If we are willing to listen both to the Bible’s commands and its promises, it increases hope – joyful persistence in life.</p>	<p>바울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자마자, 이에 덧붙여 방백(傍白)으로 훌륭한 일반 원칙 하나를 서술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4 절).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오늘날에도 온전히 적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든지"라고 말할 때, 그는 성경이 다루는 모든 문제는 영감에 의한다고 하는 성경의 "완전 영감 (plenary inspiration)"이라고 알려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설계하셨으며, 그 모두는 교훈과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1-13 단락에서 이에 대한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광야에서 방랑한 일)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1 절). 둘째, 성경은 그리스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편 68 편을 인용해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바울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성경의 모든 부분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셋째, 적절히 사용된다면, 성경은 우리 안의 "소망"을</p>

	<p>키워줄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성경의 두 가지 방법은 인내를 통한 것 (성경이 우리를 힘든 일과 훈육으로 인도한다는 의미)과 위로를 통한 것 (성경이 놀랍고 소중한 약속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꺼이 성경의 명령과 그 약속에 귀 기울인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는 소망을 더 크게 합니다.</p>
<p>As we move on to verses 5-6 we are reminded that God gives us the power to live together in Christian unity (“among yourselves”). This unity is, ultimately, a supernatural gift. It is a spirit that God must “give you”. No method can create it. And it comes from a common following of Christ. God gives it “as you follow Christ Jesus”. This real unity does not come when we seek it directly. Rather, it is a by-product of seeking something other than unity – namely, seeking to follow Christ. Passive Christians will not experience much unity. Only believers who are setting priorities for Christian growth and ministry will experience deep unity. These verses suggest two actions we can take whenever we encounter disagreements in the church. First, pray for unity. These two verses are, in fact, Paul’s own prayer that the Christians in Rome would be united in Christ as the strong and the weak live out Paul’s teaching of chapter 14 and the opening verses of chapter 15. In Luke 11-13, Jesus says, “If you then, though you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Jesus says that when problems arise, we should pray. In response to our prayers, God the Father will send the Holy Spirit to aid us in solving our problems while preserving a spirit of unity.</p>	<p>계속해서 5-6 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천 연합 가운데 (“서로”) 함께 살기 위한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 연합은 궁극적으로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야”만 하는 정신입니다. 그 어떤 방법도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범한 그리스도 추종자들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때” 그것을 주십니다. 이러한 진정한 연합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구할 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연합이 아닌 다른 어떤 것, 즉,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구하는 것과 같이 다른 것을 구할 때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수동적인 그리스천은 그다지 많은 연합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천의 성장과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신도들만이 깊은 연합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의견차이를 마주칠 때마다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두 절들은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14 장 전체와 15 장 시작 구절에 적힌 바울의 가르침대로 실행하여 로마의 그리스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기를 구하는 바울 자신의 실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13 에서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연합 정신을 지키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p>
<p>Second, praise God for Christian relationships. Paul</p>	<p>둘째, 그리스천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p>

<p>prays that God would give the Roman Christians a spirit of unity “so that with one heart and mouth you may glorify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In other words, when you find yourself in a disagreement with a Christian brother or sister remember the wonderful relationship God has given you. With one heart and mouth, thank God together for the things that unite you – especially the grace you have both receive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Giving thanks for the things that unite helps minimize the things that divide you. This spirit of unity that Paul speaks of in vv. 5-6 is not that believers should all come to the same conclusions on the matters of conscience he has been referring to, but that they might agree to disagree in love. The most telling commentary on these words in vv. 5-6 lies in Paul’s exhortation to the church at Philippi. There at the beginning of chapter 2 of his letter, he says that if they knew anything of the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if they knew anything of the comfort to be derived from the love of God, if they knew anything of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ould they not be only too glad to fill his cup with joy? But how? His request was simple – “by being like-minded, having the same love, being one in spirit and purpose” (Philippians 2: 2). So too, here in Romans 15: 5-6, his words convey the same heartfelt longing for that oneness of mind and heart, that unity of fellowship, which ought to mark the church of God. And the goal was nothing less than that they should with one heart and one mouth “glorify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p>	<p>드리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의 크리스천들에게 연합 정신을 주셔서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크리스천 형제 혹은 자매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한마음과 한 입으로 여러분을 연합시키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함께 감사 드리십시오 - 특히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은혜에 대해.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들에 대해 감사 드리는 것은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을 최소화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5-6 절에서 말하고 있는 연합 정신은 신도들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양심의 문제들에 대해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6 절에 기록된 이 말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논평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곡한 권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편지 2 장의 시작 부에서,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부터 비롯된 권면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위로나, 성령의 교제에 대해 아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잔을 기쁨으로 채우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2:2). 따라서 여기 로마서 15:5-6 에서도, 바울의 말은 그와 같은 한마음을 품는 것, 그러한 교제의 하나됨에 대한 진심 어린 갈망을 전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 짓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목표는 다름아닌 그들이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p>
<p>And Christian unity is based on our justification in Christ: “Accept one another, then, just as Christ accepted you” (v. 7). It is only as we understand that we are accepted by Christ and live in response to that, rather than living in order to be accepted by him, that we will accept others. Why is that? First, because legalists – those people who think they need to earn or keep God’s favour through their own</p>	<p>또한 크리스천의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7 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그에 응답하여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살면서 이를 위해</p>

<p>character or behaviour – need constantly to justify themselves. They have an underlying anxiety, of course, because they know deep down that God wants perfection and no one can achieve it! People who are trying to earn their salvation try to quiet down their consciences by comparing themselves to others and finding fault with others, in order to feel that God must favour them. They need desperately to convince themselves that they are the ones in the right. As a result, there is a deep insecurity and critical spirit that leads to disputes. Second, if we are living as legalists, we feel the need to tell others how to justify themselves! We impose our legalism on others and insist that they follow the same road we follow.</p>	<p>다른 사람들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율법주의자들은 - 자신의 성품이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호의를 얻거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내심 하나님은 완벽을 원하시며 아무도 그것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원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사랑하심이 틀림없다고 느끼기 위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냄으로써 스스로의 양심을 잠잠케 하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그들이 옳은 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를 확신시켜야 합니다. 그 결과, 논쟁을 야기하는 깊은 불안감과 비판적 정신이 있게 됩니다. 둘째, 만일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산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정당화시킬지 말해주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의 율법주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들이 우리와 같은 길을 따를 것을 고집합니다.</p>
<p>Thus, for a person without a true grasp of the gospel, differences of opinion and practice are huge and often insurmountable. But if we grasp justification, that we are accepted in spite of our deficiencies and flaws, we will be enabled to accept others despite their deficiencies and flaws. In fact, the way you can tell how much you understand the gospel is to look at how much you love people despite their flaws, their weaknesses and failings.</p>	<p>따라서,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는 사람에게, 의견과 관습의 차이는 매우 크며 종종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의롭다 함,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심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의 결함과 약점,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는 것입니다.</p>
<p>Again, as we come to verse 8, Paul points to Christ as the great example of this kind of service. This time, he focuses on the purpose of Christ’s serving mission which was two-fold. First, he “has become a servant of the Jews.....to confirm the promises made to the patriarchs”. He is the One who brings blessing to Abraham’s descendants. He is the One in whom the Jews find access to heaven. Second, Jesus became a servant “so that the Gentiles may glorify God for his mercy” (v. 9). Christ came so that God would accept both Jew and Gentile, and so the gospel is able to break down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 (Ephesians 2: 14). Jew and Gentile, strong and weak, rich and</p>	<p>8 절에 이르러 바울은 다시 한번 이러한 종류의 섬김에 대한 훌륭한 본보기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번에 바울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던 그리스도의 섬김 사역의 목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가져온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은</p>

<p>poor must reflect this in their relationships in the church.</p>	<p>"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9 절)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받으실 것이며, 따라서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 놓은 담"을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14). 유대인과 이방인,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는 교회 내에서 그들의 관계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p>
<p>In fact, God’s purpose was always to have a people made up of all nations, Jew and Gentile. Paul shows this from four Old Testament quotations in vv. 9-12. There is a progression through them. First, God’s name is to be praised among the Gentiles by his people, the Jews (v. 9). Then the Gentiles are to be invited in to praise “with his people” (v. 10), so that “all you peoples” (Jew and Gentile) will praise the Lord (v. 11). And all this will be accomplished by “the Root of Jesse” – the great King to come from the line of David, Jesse’s son – as the nations come under his rule and find “hope in him”. God’s plan has always been for his people to proclaim to the nations that God is to be praised, and to draw the nations into his people under the rule and hope of his chosen King. As one commentator says, “Paul cites every part of the Old Testament – the Writings (Psalms), the Law (Deuteronomy) and the Prophets (Isaiah) – to show that inclusion of Gentiles with Jews in the praise of God has always been part of God’s purposes”.</p>	<p>실제로,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모든 민족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백성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9-12 절에 오래된 네 개의 구약 구절을 인용함으로 이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그 구절들을 관통하는 점진적 진전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백성인 유대인들에 의해 이방인들 가운데 찬양될 것입니다 (9 절). 그리고 이방인들은 "주의 백성과 함께" (10 절) 찬양하는 데에 초대되어, "너희 모든 민족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11 절).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열방이 그의 통치 하에 놓이고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되면서, "이새의 뿌리" -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위대한 왕에 의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그의 백성들이 열방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선포하게 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통치와 소망 하에 열방을 그의 백성들에게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석자가 말하듯이, "바울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방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 계획의 일부였음을 보여주기 위해 구약의 모든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 가르침 (시편), 율법 (신명기), 그리고 예언서 (이사야)."</p>
<p>Gospel unity across every difference and disagreement is what God has always been working toward. As the Roman Christians – Jew and Gentile, weak and strong, rich and poor, and so on – meet together to praise the Root of Jesse, Jesus Christ, they are expressing their “spirit of unity among (themselves) as (they) follow Christ Jesus” (v. 5). And in so doing they are embodying God’s plan, and bringing him glory (v. 6). If God can unify Jews and Gentiles in one church body, then he can resolve whatever divisions and issues we may face here at</p>	<p>모든 다른 점과 의견 차이를 아우르는 복음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의 크리스천들이 - 유대인과 이방인, 약한 자와 강한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등등 - 함께 모여 이새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때에 (그들) 가운데 연합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구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p>

<p>Canterbury and indeed in the wider church today.</p>	<p>것입니다 (6 절). 하나님이 한 교회에 속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시킬 수 있다면, 여기 캔터베리 교회에서 그리고 실로 오늘날 보다 폭넓은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떤 분열과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그 또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p>
<p>Paul concludes with a magnificent benediction in v. 13: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as you trust in him, so that you may overflow with hop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is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verses in the Bible. All the great words of the Christian faith appear in it: hope (overflowing hope!), joy, peace, trust and power –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ho opens doors and no man shuts them, and shuts doors and no man opens them. Let us unite on the great positive ideas of our faith – the affirmation of all that is ours as Christians, as members together of the family of God. When we reflect on everything those words mean to us, all of our trifling divisions and petty arguments fade into insignificance.</p>	<p>바울은 13 절에서 감명 깊은 축복으로 글을 맺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크리스천 신앙의 모든 훌륭한 말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소망 (넘쳐흐르는 소망), 기쁨, 평강, 믿음, 능력 - 문을 열면 어떤 사람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며, 문을 닫으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는 성령의 능력. 우리 믿음의 이 훌륭하고 긍정적인 관념들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 그 모든 것에 대한 확약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가족의 일원들로 함께하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 말들이 우리에게 뜻하는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볼 때, 우리의 하찮은 분열과 사소한 논쟁 모두는 무의미한 것으로 퇴색할 것입니다.</p>
<p>Hope, joy, peace, trust an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 may the God of hope fill our hearts with love for one another so that we will display these wonderful characteristics in our society, before a watching world.</p> <p style="text-align: right;">Amen</p>	<p>소망, 기쁨, 평강, 믿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 - 소망의 하나님께서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어 이러한 놀라운 특징들을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앞에, 우리 사회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p>